

원발 복막 악성 중피종의 폐전이 1예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폐질환연구소*
이진형, 한창훈, 문진욱, 정재호, 박무석, 김영삼*, 김세규*, 장 준*, 안철민*, 김성규*

서론; 복막에서 기인된 악성 중피종은 모든 중피종의 약 10%에 해당되며, 연간 발생률은 인구 100만명당 1-2명으로 드문 질환이다. 저자 등은 석면에 대한 노출력이 없는 54세 남자 환자로써 원발 복막 악성 중피종의 폐전이로 진단된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.

증례; 본 54세 환자가 3개월간의 복부팽만감을 주소로 내원하여 복부초음파 시행후 다량의 복수 및 복막의 조영증강소견을 보여, 본원에 입원하였다. 흡연력은 35갑년 이었고 직업은 농부로 석면이 포함된 단열재등의 노출력은 없었다. 내원후 시행한 진단적 복수천자에서 백혈구 $2025/\text{mm}^3$ (단핵구 91%, 다형핵호중구 9%), 혈청복수알부민농도차이는 1.0g/dl 이었고 세포병리검사상 악성세포는 없었다. 복강경 검사상 양측의 상복부 복막에 주로 작고 균일한 결절과 부분적으로 다소 큰 결절들이 흩어져 있는 양상이었고, 단순 흉부X-선 촬영 및 전산화 단층촬영결과 간질성 병변 소견이 있어 경기관지폐생검을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 발견되지 않아, 개흉폐생검을 실시하여 늑막에는 병변이 없으나 폐에 악성 중피종 세포의 전이를 확인하였다.

고찰; 원발 복막 악성 중피종의 폐전이는 매우 드물고, 중피종의 치료에 대해 항암약물치료, 수술적치료, 복막내 고열관류치료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아직 표준 지침이 없는 상태로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따라야할 것이다.

아밀라제 상승이 동반된 편평상피세포폐암 1예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폐질환연구소*
정현수, 한창훈, 문진욱, 강신명, 정재호, 박무석, 김영삼*, 김세규*, 장 준*, 김성규*

서론; 혈청 아밀라제는 췌장질환, 타액선질환, 신부전, 종양(폐, 식도, 유방, 난소 등), 폐양천공, 당뇨병성케톤뇨증, 화상, 박리성 대동맥류, 만성 간질환, 임신 및 폐렴 등에서 상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고아밀라제혈증이 동반된 원발성 폐종양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 조직형이 선암이며, 일부 소세포성폐암이 보고되고있으나, 편평상피세포폐암은 국내에 보고된 바가 없다. 저자 등은 혈청과 흉막액 아밀라제 상승을 동반한 편평상피세포폐암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.

증례; 78세 남환이 2개월 전부터의 식욕부진, 소화불량, 1개월 전부터의 기침 및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. 과거력 상 25년전 협심증, 심방세동으로 진단 받았으며 흡연력은 25갑년, 음주력은 50년간 1주에 소주 반병이었으며 가족력 상 특이사항은 없었다. 문진 상 기침, 호흡곤란, 식욕부진을 호소하였고, 이학적 검사 상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만성병색을 보였으며, 의식은 명료하였다. 결막은 창백하지 않았고, 공막의 황달은 없었으며, 경부에서 임파절은 촉진되지 않았다. 흉부청진 상 양측 하폐야에서 호흡음이 감소되어 있었고, 복부촉진 상 압통은 없었으며, 간이나 비장은 촉진되지 않았다. 검사실소견 상 말초혈액에서 혈색소 12.0g/dL , 백혈구 $7,600/\text{uL}$ (호중구 64.5%, 림파구 20.5%, 단핵구 8.5% 호산구 2.5%, 호염구 1.2%), 혈소판 $450,000/\text{uL}$ 이었으며, 혈청 생화학 검사 상 특이소견 없었으며, 혈청아밀라제가 590U/L , 종양표지자 검사 상 CEA 6.07U/mL 로 상승되어 있었고, 흉수에서 아밀라제 241U/L , CEA 9.32U/mL 로 증가되어 있었다. 복부초음파 및 컴퓨터단층촬영, 상부위장관 내시경, 타액선스캔 상 위폐양 외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, 흉부컴퓨터단층촬영에서 종괴가 관찰되어 시행한 경기관지폐생검 결과 편평상피세포폐암으로 진단되었다.

고찰; 원발성 폐암에서 아밀라제가 증가하는 기전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으나 대부분 타액형이며, 선암, 소세포폐암의 종양세포에서 분비과립 등이 관찰되기도 한다. 그러나 편평상피세포폐암의 경우 아직 보고된 바가 없어 저자 등은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.